



- 1행 두달은 거두어 들이는 달. 두달은
 - 2행 씨 뿌리는 달. 그 두달은 뒤늦게 익은 것들(을 추수하는) 달
 - 3행 한 달은 아마를 뽑는 달
 - 4행 한 달은 보리를 추수하는 달
 - 5행 한 달은 추수하고 (곡식 농사를) 끝내는 달
 - 6행 두 달은 포도를 따는 달
 - 7행 한 달은 여름 과일(을 거두는) 달
- 세로 아비아

* 이 번역은 저자의 개인 번역이며, 몇몇 논쟁이 되는 단어들의 번역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라.

3행의 번역에 대해서 대부분의 번역은 “추수하다”라고 번역하였으나, 나는 콜러 Aaron Koller 의 견해를 따라 טאָן 가 아랍어 تأين 의 방언이라는 말에 동의해서 “뽑다”라고 번역하였다. 실제로 아마는 땅에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추수를 한다. Koller, Aaron. “Ancient Hebrew טאָן and טאָן in Gezer Calendar.” *Journal of Near Eastern Studies* 72[2] (2013): 179-193.

5행의 번역에 대해서는 몇가지 다른 의견이 제시되었다. 울브라이트는 “한 달은 추수하고 축제를 벌이는 날”이라고 번역하였다. 이 번역은 히브리어 עָרַב 로 읽었기 때문이다. 탈몬 S.Talmon 은 טאָן 을 טאָן 로 읽어서 “한 달은 두 묶을 추수하는 달”이라고 번역하였다. 혼제발 S.J. Ronzevalle 은 טאָן 을 ה'טאָן (ה'טאָן)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한달은 추수하고 (곡식 농사를) 끝내는 달”이라고 번역하였다. 나는 혼제발의 견해를 따랐다. Talmon, S. “The Gezer Calendar and the Seasonal Cycle of Ancient Canaa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3[2] (1963): 177-187.

게젤(Gezer) 달력

절벽의 벼랑, 현무암에 잘 다듬어진 비석, 토기, 토판 등 어디에 기록이 되었든 고대 기록물의 기록자를 알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썼습니다.”라고 드러내 놓고 기록한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글자를 판독할 수는 있지만, 그 글자를 기록한 사람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

우 독특하게 **게젤**(Gezer. 우리말 성경에는 ‘게셀’이라고 번역하였다.)이라는 곳에서 1908년에 발견된 넓적한 석회석 판 위에 새겨진 글은 저자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어서 누구인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아**”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이 그 주인 공입니다.

아비아가 누구인지, 그 직업은

무엇인지 똑 떨어지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아마 세금 징수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이 석판에 기록된 내용은 일년 중 해당하는 달에 어떤 농업 활동을 하는가인데, 농업을 하던 사람들로 부터 세금 징수를 위해서 **아비아**가 일종의 ‘**구분 열람표**’처럼 기록한 것은 아니었을지요. 그렇다면, 이 석판은 이스라엘 사람, **아비아**가 기록한 공

❖ 게젤 달력에 기록된 글이 고대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가나안에서 사용되던 페니키아어 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다. 쿠쳐 E.Y. Kutscher나, 쯔빗 Z. Zevit, 나베 J. Naveh와 같은 이들은 히브리어가 아닐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반대로 올브라이트 W.F. Albright, 깁슨 J.C.L. Gibson, 크로스 F.M. Cross, 프리드만 D.N. Freedman은 이것이 고대 히브리어의 방언이라고 주장한다. 게젤 달력의 언어학적인 연구로는 가장 최근 연구를 한 언어학자는 영 Ian Young 인데, 그는 이 언어의 체계를 고대 히브리어 (ABH, Ancient Biblical Hebrew) 로 규정한다.

Young, Ian. "The Style of the Gezer Calendar and some "Archaic Biblical Hebrew" Passges." *Vetus Testamentum* 42[3] (1992): 362-375.

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하는 농업 기술 전문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달력에서 오늘날 처럼 12개월의 달력을 사용했다는 것이 참 흥미롭고, 성경에서 말하는 달에 따른 농사 이야기들과 딱 들어맞기에 더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3,000년 전이나 그 이후로 심지어 지금에 이르기 까지 농업 환경 만큼은 변화가 없었나 봅니다.

한가지 더 확실해 진 것은 **솔로몬**의 시대, **게젤**의 사람들은 가을부터 시작되는 달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력은 봄인 **니산월**부터 시작되는 달력체계와 가을인 **티슈리월**부터 시작되는 달력체계가 있습니다. **레위기** 23:23-25에서는 일곱째 달의 첫날을 나팔을 부는 절기로 규정하고, 이 날을 **유대교**에서는 신년으로 기념하고 있는데요. **티슈리월**이 바로 **게젤** 달력이 시작하는 ‘거두어 들이는 달’입니다.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이미 **레위기**에 기초한 달력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거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는 저에게 이 석판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발견입니다.

첫번째는 **다윗-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성경

의 기록이 역사적인 진실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소해서 이해하는 성서학자와 고고학자 가운데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과연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왕들이었나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솔로몬**의 시대에 **게젤**이라는 도시의 주인이 **가나안**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바뀌었는데, 이 성경의 기록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 주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시대에 **게젤**에서 기원전 10세기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던 “**아비아**”라는 이름이 새겨진 석판이 발견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솔로몬**의 시대에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더불어 성경에서 말하는 **솔로몬**의 치세도 입증되는 놀라운 작은 석판이 **게젤** 달력입니다.

두번째로 당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가? 라는 질문에 고전적인 문서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대 **서아시아** 지방과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다할 문자

문명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처럼 문자화된 기록을 갖게 된 것은 매우 후대라고 주장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원전 10세기(통일왕국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문자가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올브라이트**의 말 대로라면, 이미 학교가 만들어 저서 글을 쓰고 읽는 법을 가르쳤다는 말이 되니, 이것 또한 학문의 이론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발견된 시기가 **팔레스타인** 땅이 **오스만** 제국의 시대였기에 진품은 현재 **이스탄불**의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 되어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꼭 찾아가 눈으로 읽어 보고 싶습니다.

* 이 글을 쓰는데, 참조한 책들
Albright, William F. "The Inscription from Gezer at the School in Jerusalem."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58 (1935): 28-89.
Young, Ian. "The Style of the Gezer Calendar and some "Archaic Biblical Hebrew" Passges." *Vetus Testamentum* 42[3] (1992): 362-375. 